

9월의 광주, 독서·소풍·문화·예술·스포츠로 가득하다

독서여행, 세계양궁대회, 디자인비엔날레, 강변 산책길...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광주 곳곳에서 책과 함께하며 소풍·문화·예술·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잇따라 펼쳐진다. 광주시는 9월 한 달 동안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가을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시립도서관에서는 9월 한 달간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의 달' 행사를 선보인다. 무등도서관에서는 어반드로잉과 문화작품 전시, 테마도서 전시가 펼쳐지며 사적도서관에서는 그림책 원화전 '책과 노니는 집' 및 테마도서 전시가 진행된다. 산수도서관에서는 오월의 주먹밥이 전시되고 종이꽃으로 장식하는 나만의 시집 만들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9월 6~7일 시청에서는 '빛고을 책마당(Read in Gwangju)'이 열린다. 테마별 특별세션 운영, 작가 강연, 야외도서관 조성, 어린이·가족 맞춤형, 조용한(사일런트) 요가, 조용한 영화관, 참여형 퀴즈대회 등이 진행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개관 10

주년을 맞아 대규모 전시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9월 5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전 '봄의 선인'은 민주주의와 예술의 관계를 재해석하고 아시아문화주간 'ACT페스티벌'(9월 5~14일)이 열린다. 9월 27~28일은 '책 읽는 ACC'로 운영돼 전국 독립서점과 출판사가 참여하는 북마켓, 아트마켓, 아시아문화포럼이 펼쳐진다. 9월 5일부터 28일까지는 광주가 양궁의 열기로 가득찬다.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장애인양궁대회가 국제양궁장에서 열리고 결승전은 민주주의 상징 5·18 민주광장에서 열려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파한다.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미래를 엿볼 수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도 지난달 30일 개막해 11월 2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펼쳐져 관람객의 발걸음을 머물게 한다. 광주 도심을 울리는 글로벌 음악축제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은 9월 6일 시작 공연 일원에서 열린다. K팝부터 록, 재즈, 퓨전국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라이브로 즐



광주시청 잔디광장 도서관 문화한마당. 사진=광주시청제공

길 수 있다. '먹거리·예술·공원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축제'도 9월 한 달 동안 이어진다. 광주송정역 일원에서는 9월 12~13일 '남도맛페스티벌 & 도란도란 문화야시장'이 열리고 예술마을 양림동에서는 매주 토요일 '양림 아트 워크'가 진행된다. 광주예술의전당에서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합창·교향악·콘서트 등을 즐길 수 있는 공연예술축제 '그라제'가 선보인다. 황룡진수공원 일원에서는 9월 20~21일

이틀 동안 불꽃놀이·버스킹 공연이 어우러진 '광산뮤직ON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 밖에도 송산근린공원·황룡진수공원·서창 윈드&선셋(Wind & Sunset) 조망대·나눔누리정원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산책할 수 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9월 광주에서는 책과 예술, 축제와 스포츠, 소풍을 즐길 수 있다"며 "광주를 방문해 가을 힐링을 느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광춘 기자

'던지고 때리고' 광주·전남 공무집행방해 각각 2.2일·1.1일 한번 꼴

광주·전남에서 경찰관을 향해 주먹 또는 흉기를 휘두르며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3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 건수는 총 2360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연도 별로는 ▲2020년 472건(광주 138건·전남 334건) ▲2021년 445건(170건·275건) ▲2022년 487건(192건·295건) ▲2023년 496건(164건·332건) ▲2024년 460건(155건·305건)으로 매년 400건이 훌쩍 넘는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2.2일에 한 번, 전남은 매일(1.1일) 한 번 꼴로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폭행·협박·위계로 방해하는 범죄 행위다. 단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2360건 집계
음주단속·범칙금 부과... 사소한 불만이 원인
경찰 예산 195억원 들여 바디캠 보급 사업

공무집행방해(위험 물건 사용 또는 집단 폭행)는 형량이 2배까지 가중된다. 음주 운전 단속, 범칙금 부과, 무전 취식 단속 등에 불만을 품은 경우가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달 21일에는 광주 서구 한 파출소에서 범칙금을 두 차례 부과한 데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공초를 던진 50대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같은 날 서구 금호동 한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는 50대 남성 B씨도 붙잡혔다. 동종 범죄 전

력으로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달 8일 북구 한 음식점에선서는 만취 상태로 욕설하며 손님을 내쫓으며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 C씨가 구속됐다. C씨는 지난 2년 사이 8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습 주취 폭력 사범이었다. 전남에서는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밀치고 달아난 10대도 있었다. D군은 지난 2월 광주 광산구 동곡동에서 나주 방면 도로에서 '오토바이 3대가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약 20분간 도주 행각을 벌이던 D군은 나주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고, 경찰은 순찰차로 입구를 봉쇄한 뒤 달아나려던 D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대응력 향상 사업안을 내놓았다. 이 사업은 195억원을 투입,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1만4000여 명에게 바디캠을 보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바디캠'은 지난해 7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정식 경찰 장비로 분류됐다. 현장에서는 바디캠을 통한 보다 원활한 공무집행방해 현장 대응 등 범죄 대응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지구대와 비롯한 경찰관들은 사비와 지급되는 경찰 복지 포인트를 이용해 바디캠을 구매했다. 공권력 남용 오해와 경찰관 보호,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 입증 등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830여 곳을 대상으로 역사왜곡 도서를 전수 조사해 학교 70곳에서 32종, 169권의 진일잔재 역사왜곡 의심 도서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논란 도서는 각 학교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이후 추가적으로 발견하는 도

전남교육청, 역사왜곡 의심 도서 32종 169권 확인

서는 전남시민사회단체와 역사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26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은 현장의 판단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의 기능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강화해 유

"불법이지만 안 걸려요"... 21세기 맹모삼천지교?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알면서 위장전입용 원룸 거래 주선 "폴패키지 원룸에 이불만"... 실거주 조사 회피 '폴팁' 안내도 학원 원정 온 학생 숙식용 원룸 '만실'... "대기순번 받아야"

뒤틀린 교육열, 불법전입

"불법이지만 하죠. 그래도 실제 사는 것처럼 해 놓으면 돼요." 봉선2동은 유명학원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다. 준공 20년 이상 30평대 아파트조차 거래가가 8억원 안팎을 호가할 만큼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광주의 강남'이자 '교육 1번지'로 이름 나 있다. 봉선동 학군 내 중·고등학교 진학까지 염두하며 봉선2동 내 특정 초등학교 2곳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일대 아파트 거래가가 높은 만큼, 사는 곳은 따로 두고 서류상 거주지만 옮기는 위장전입도 적지 않다. 실제 이미 과밀학교(학급당 학생수가 28명 이상)인 모 초등학교는 전학년을 통틀어 해마다 60명 안팎 학생이 전학 오고 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역시 최근 3년 사이 전학생 수가 최소 91명에서 109명으로 이른다. 학년 당 4~5학급을 기준으로 매년 한 학년이 더 생기는 꼴이다. 두 학교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군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다른 학교 대비 전학생 수가 많다. 입학시험 3월 개학 직전 2~3개월 사이 신규 전입 학생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모양새다. 봉선동 일대에서는 유독 두 초등학교에만 몰리는 학생 중 상당수가 위장전입이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학부모들의 비뚤어진 교육열이 낳은 수효에 편승,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도 학군 배정 목적의 부동산 매물을 버젓이 알선하며 불법전입을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아예 가족이 주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면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 학생만 주소를 옮기는 위장전입은 요즘 거의 찾지 힘들다고 전했다. 대신 집값이 비싼 아파트보다도 학군지 전입 목적의 단기 임대 원룸 매물 거래를 소개하고 있다. 보통 2년 계약부터 시작하는 원룸의 월세 가격은 40만원 선이었다. 임대 계약을 통해 전입 신고용 주소지만 확보하는 꼴수다. A부동산 중개업자는 "집을 아예 이사하는 게 아니라면 (위장전입용) 방을 구하는 게 불법이긴 하다"면서도 "원룸 안에) 가족이 사는 것처럼은 해

야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불법 전입을 가볍게 이야기했다. "다른 동네에 사는 학부모들도 입학 전년도부터 종종 전입 문의를 한다. 봉선동에서는 나름 알려진 방법인데, '내 자식 좋은 학교 보내고 싶다'는 부모 마음은 다 같지 않겠느냐"고 했다. 학군 배정용 원룸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지만 수요는 꾸준하다. 만실이라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대기 번호를 받아 놔야 하는 일도 벗어났다. 학군 배정지 내 원룸 매물은 수요일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더욱이 주변에 즐비한 유명 입시 학원가에 원정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들의 입시 숙식 용도로 선호도가 높아 봉선동 일대 원룸 구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나방'처럼 학부모 수요는 꾸준하다. 이처럼 위장전입용 원룸 매물 증가와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할 행정 당국은 무력하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남구 봉선동 내에서 위장전입이 적발 또는 처벌된 전례는 없다. 전입 세대가 전입신고를 하면 통장이 직접 신고된 주소등록지에 가서 사실 확인을 거친다. 통장 방문 때 부재중이거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2차 조사를 나간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를 내세우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기 일쑤여서 실질적인 처벌은 전무하다. 법원이 헐거워지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보란 듯이 실거주 조사에 응하는 요령도 '폴팁'처럼 공공연하게 알려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C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통장들이 곧 실거주를 확인한다더라. 거래되는 원룸 내부에 세탁기·냉장고는 갖춰져 있으니 이를 정도만 챙겨 오면 된다"고 했다. 관할 자치구인 남구 관계자는 27일 "공무원과 통장이 전입신고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거주자가 사생활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현장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오권철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